

# 클래식, 재즈에 심고 대중에게 다가갈게요

## 사방으로 퍼지는 민족의 기상

무등갤러리 19~25일 한남순전

### 창단 공연 갖는 '클래즈 앙상블'

이상훈·김경일·강윤숙·진진씨 구성

30일 광주문예회관... 쇼팽·바흐곡 연주

세계적인 연주 그룹 자크 루시에 트리오, 클라즈 브라더스 등은 클래식과 재즈가 어우러진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자크 루시에 트리오가 들려주는 바흐의 작품, 쿠바 음악까지 포용한 클라즈 브라더스의 모차르트 작품들은 색다른 느낌을 준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템페스토'(폭풍)는 작품 제목처럼 사나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연주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피아노 한 대로 연주되는 게 정석이지만 드럼과 더블베이스, 바이올린이 어우러진 재즈풍으로 편곡해 듣는 느낌은 또 다르다.

'재즈로 듣는 클래식.'

광주에서 클래식과 재즈를 접목한 연주 그룹 '클래즈 앙상블(CLAS Ensemble)'이 첫발을 댄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클래식과 재즈가 결합된 그룹이다. 클래식을 모토로 재즈적인 리듬과 화성을 가미해 대중에게 편하게 스며들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한다.

멤버는 대표를 맡은 바이올리니스트 이상훈씨를 비롯해 첼리스트 김경일, 재즈피아니스트 강윤숙, 보컬 진진씨 4명이다. 이 씨는 폴란드 쇼팽음악원, 오스트리아 하이든 주립 음악원에서 수학했으며 첼리스트 김씨는 오스트리아 빈 종합예술학교 출신으로 빈 시립음대, 케트너 주립음대에서 공부했다. 강 씨는 호남신학대 실용음악과 전임교수로 재즈와 클래식을 접목한 무대를 꾸준히 열었다.

시작은 지난해 열린 진진씨의 콘서트였다. 오스트리아 하이든 콘서트바토리에 수학하고 오스트리아와 한국을 오가며 활동을 펼치던 메조 소프라노 진진씨는 새 음반 '바람의 무늬'를 냈다.

정통 클래식을 전공한 그녀는 클래식과 대중의 만남을 시도하며 '재즈풍' 곡들을 음반에 실었고 일반인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들로 레퍼토리를 짰다. 이 때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이들이 오스트리아 유학 시절 함께 부대꿨던 김경일, 이상훈씨와 세션으로 참여한 강윤숙씨였다.

창단 공연 '삼월 삼십일'은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오는 25일 오후 8시 광주 상무지구 커피숍 '아사'에서는 리허설을 겸한 악식 공연도 갖는다.

연주 레퍼토리는 바흐의 '인벤션 4번'과 '이탈리안 콘체르트', 알비니 '아다지오', 푸치니의 '잔니스키기'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쇼팽의 '연속곡 작품 10',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민요 '아리랑', 최영경 곡 '마당밤',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등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보스톤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고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등의 무대에 온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송미호, 개인 음반 'Traveling to Face Myself'를 발매하고 '프렐류드' 등에서 활동중인 드럼 연주자 한웅원씨가 협연한다.

진진씨의 딸인 이가영(여도초 4년)양이 특별 출연해 안도현 시에 곡을 부친 '마당밤'을 함께 부르며 '리베르 탱고'를 연주할 때는 문현화, 김안서, 준댄스 무용단의 공연이 곁들여진다. 문의 010-9439-820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클래즈 앙상블'의 김경일·강윤숙·이상훈·진진씨.(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 예술의 거리로 봄 소풍

보물찾기 스탬프행리·인문학 강연 등

예술의거리활성화사업단은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오는 2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3~8시에는 '공동유람-예술의거리 보물찾기 스탬프행리' 프로그램이 열린다.

예술의거리활성화사업단은 예술의 거리 내 상점 주인들로부터 추천받은 25개의 보물이 담긴 보물지도도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지도를 들고 상점을 찾아다니며 보물을 감상하고 스탬프를 찍는다. 25개의 보물 중 10개의 보물을 찾아오면 예술의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술쿠폰(4000원)을 받을 수 있다.

25개의 보물 중에는 소치 허련의 사군자, 의재



허백련의 매화그림, 천경자 화백의 그림 등 인상적인 작품들이 많다. 참가신

청은 현장에서 선착순 100명에 한해 접수가 이루어지며, 단체의 경우 사전에 사업단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시민들이 만나고 싶은 명사와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공동에 온 인문학' 강연회도 시작된다.

오는 27일 오후 4시 열리는 광노현 전 서술시교 육감의 '문화도시 시작과 끝, 교육'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창조적 감성과 문화의 힘'(4월 17일) ▲박재희 전통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의 '인생을 바꾸는 모멘텀'(5월 15일) 등이 이어진다. 문의 062-223-013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폭발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전통적인 소재와 접목해 화폭에 녹여내고 있는 서양화가 한남순씨의 개인전이 19일부터 25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한씨는 이번 전시에서 '축제'를 주제로 축제 연작들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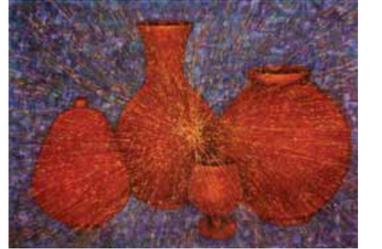
한씨 작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화면의 중심에서 사방으로 퍼지는 다양한 색 점들이다. 여러 개의 점에서 만들어지는 빛의 파장이 화폭 속 이미지 속에서 또는 화폭 전체로 뻗어나가면서 색의 향연을 만들어낸다.

이 같은 이미지들의 구성은 불꽃놀이를 연상하게 한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하늘을 수놓는 폭죽들의 몸부림이 화폭 속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불꽃과도 같은 이미지들은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선사하기도 한다. 꽃봉오리가 꽃을 피우듯, 가슴에 담아두었던 무엇인가를 분출하는듯한 순간의 파장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특히 빛과 색, 에너지의 중심에 도자기 등 전통적인 소재들이 놓여있어 사방으로 퍼지는 빛의 흐름이 민족의 기상과도 연결되는 듯하다.

한씨는 호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문의 062-236-252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축제'

### 색즉시공, 공즉시색

한평갤러리 20~25일...김성결·박세희 등 초대

대인예술시장에 위치한 한평갤러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주제로 올해 3번째 전시를 개최한다.

2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김성결·박세희·송지윤·윤종호·윤혜단·인촌교씨 등 3명이 초대됐다. 김성결은 신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는다. 양복과 모자, 타이 등 장식물로 치장한 외관은 그저 겉데기엔 불과할 뿐 신사의 내면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 이면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세희는 인간의 삶을 이동과 정주의 역사로 파악한다. 특히 현대인들이 생성과 소멸의 궤적을 좇아가며 유목민적인 삶을 살아가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를 보여준다.

송지윤은 스스로를 착취하는 '피로사회'에 대한 경고를 던진다. 건조한 색채와 왜곡된 형상, 불안정한 구도가 인상적이다. 윤종호는 의복과 꽃을 오브제로 활용해 외적 인격과 자아를 동일시 하는 현상에 대해 경고한다.

윤혜단은 복잡하게 뒤얽힌 일상을 픽셀을 통해 풀어내고, 인촌교는 기억에 대한 단상들을 작품에 담아낸다. 문의 010-2620-861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송지윤 작 '개토끼 시리즈'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 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마감시공  
4.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